

# 더민주 2차 컷오프 심사...국민의당 1~2명 공천 배제

## 광주·전남 현역 의원들 '잡 못 드는 주말'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판 몰같이 폭풍을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몰같이 태풍을 피하고 경선 고지를 넘어선다고 해도 본선에서의 치열한 일전이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주름살은 깊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2차 공천 원천 배제자를 가려내는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4일 현역 국회의원 단수 신청지역을 마지막으로 지역구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끝낸 뒤, 그동안 취합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공관위는 이 과정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50%, 초재선 의원의 30%를 따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당선 가능성에 조정을 맞춘 경쟁력 심사를 진행한다.

또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 전과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등을 윤리심사 대상으로 올려 부적격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경쟁력 심사 대상은 지역구별 여론조사를 토대로 압축할 예정"이라며 "여론조사는 이미 마쳤으며 면접이 끝난 뒤 결과를 보고 정밀심사 대상을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경쟁력심사와 윤리심사 대상이 4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내 분란 등을 감안, 공천 배제 현역 의원은 두 자릿수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 컷오프 현역 국회의원 명단은 내주 중반께 밝혀질 전망이다. 김종민 비대위 대표를 비롯해 공관위가 계파패권 해소,

### 더민주

중진·친노·86그룹 축각

### 국민의당

6일 면접 이전에 평가 완료

운동권 문화 청산을 공공연히 밝힌 터라 중진과 친노(친노무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국회의원들은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더민주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1~2명은 경쟁력 및 윤리심사 컷-오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는 경선지역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경선에 들어가고, 24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해 오는 20일을 전후해 경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미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신임 여론조사를 마친 데 이어 경쟁력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6일 면접 이전에 광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14일 경선 시작에 앞서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을 발표할 예정인데 최소 1~2명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주지역 후보 경선 물은 둘러싸고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속의 배심원 단제도와 속의 선거인단제 도입 여부는 물론 규모와 대상을 놓고 당내 특정 계파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지 않는 경선 물이 도입될 경우, 상당한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일 오후 부산여성회관에서 '부산청년여성과 함께 희망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국민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협뉴스

## 대선개입 의혹·정상회담 대화록·세월호·필리버스터...

# "역대 최악" ...19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

## 선진화법에 '몸싸움 동물국회' 사라져 긍정 평가도

국회가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다. 이에 새누리당은 9~10일 중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미처리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이에 부정적이어서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으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추가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 마음은 모두 총선 현장에 가 있어 19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불투명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난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산 심의가 영성하게 이뤄졌고 법안에 대한 토론도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논치를 보느라 야당과 합의한 내용마저 되돌리기 일췌였고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이 같은 국회 상황은 박근혜정부의 일방독주에서 나온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비록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선진화법의 가동으로 여야가 사사건건 몸싸움을 벌이고 직권장정, 날치기, 장외투쟁 등으로

얼룩지는 '동물국회'가 사라진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개원(開院) 첫해를 대선 국면으로 시작한 19대 국회는 이듬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논란으로 여야는 힘겨투기만 반복했다.

2014년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여야 공방으로, 지난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회가 수시로 멈춰서는 등 정쟁의 불모가 됐다.

여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진화법 개정으로 법안 처리요건을 완화해서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는 국회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즉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헌법·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DJ·YS 아들들 총선 전면 나서나

## 더민주 김홍걸 비례·김현철 부산 출마설 모락모락...본인들은 부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과 김현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의 총선 출마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야권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저퐁'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민통합의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과 주변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선거에 이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를 두고는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여기에 김기정의

원외 불출마 의사를 밝힌 광주 북갑 전라 공천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에 대해서는 탈당할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 부산 사하를 출마설이 나온다. 부산지역 민주계 원로모임인 부산민주동우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철씨가 야권 후보로 부산 출마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중앙당과 부산시당 측에서도 사하를 출마를 염두에 두고 비공식 통로로 접촉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도 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을 관악을 전라공천설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3일 YTN라디오에 나와 "홍걸씨도 출마를 안할 이유가 없고, 현철씨를 사하에 출마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직한 카드"라며 "대통령의 2세라고 해서 정치를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홍걸씨 측 한 인사는 "지금으로선 이쪽에서 먼저 나서서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드는 것이지 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희호 여사도 홍걸씨의 정치 참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철씨 역시 "총선 출마는 부담스럽다"며 주위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강하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 스미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백원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